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메뉴선정에 꽤나 진지한 MZ 하신정 매니저입니다. 양재미식회 F&B 앰버서더로서 양재본사 임직원분들께 은근 맛있고 진부하지 않은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여, 입맛이 유난히 까다롭고 예민한 저희 팀원 3명과 함께 ‘탄탄면공방’이라는 식당에 방문해보았습니다. 식당 위치는 양재시민의숲역에서 걸어서 4분, 본사건물에서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여러 식당들이 모여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리확보에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근처 다른 식당으로 갈 수 있는, plan B 수립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숨겨진 맛집이라서 인지 오픈런 해야할 정도로 자리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4인석 테이블 + bar 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5~6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고 인테리어는 이웃나라 동양미가 적당히 느껴지는 분위기로 귀엽고 깔끔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fancy한 식당은 혼밥하기 뻘뻘하고, 그렇다고 맛에만 몰빵한 것 같이 허름한 식당은 직장동료들과 같이 가거나 사회생활 용으로는 가기 힘든데, 탄탄면공방은 I와 E 모두가 갈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문 및 결제방식은 요즘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키오스크로 가능했고 물론 우리회사 H-eat 어플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장님이 영수증 번호를 불러주면 셀프로 배식구에서 음식을 픽업해야 하는 시스템이니 귀찮더라도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식사 나올 때 까지는 킵하고 계셔야 합니다.



탄탄면집이라고해서 메뉴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뉴 종류도 은근히 다양해서 오늘 남남기행 파티원들의 제각각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각자 골라 먹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탄탄면 2그릇 + BIG육고명튀김 교자 2개 + 바삭순살닭튀김이 나오는 ‘2인 탄탄세트’를 2세트 시켰습니다. 탄탄면은 추가금액을 내면 취향껏 맛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저희 짬짬멤버들은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추가금액을 부담해서 각자 먹고 싶은 탄탄면을 주문했습니다. 사천의 맛을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임님은 아주매운 맛 사천탄탄면을 시키셨고, 밥보다 마라탕을 더 좋아하는 윤매니저님은 마라탄탄면을 고르셨습니다. PT를 많이 받아서 평소에 더위를 잘 타는 변매니저님은 시원한 냉탄탄면을 골랐고 애기입맛인 저는 안매운 새콤비빔탄탄면을 시켰습니다.





따뜻한 탄탄면은 달향아리가 연상되는 동그란 보울에 플레이팅 되고 반숙란, 파채, 육고명이 디폴트로 토폭 되어 나옵니다. 차가운 탄탄면은 좀 더 넓은 그릇에 담겨 나오는데 아쉽게도 반숙란 대신 김밥 속재료 같은 채썬 계란이 올려져 나옵니다. 다음에 또 차가운 탄탄면을 먹는다면 그 때는 반숙란 토폭을 따로 추가해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남남파티에서 만큼은 제가 리더니가 찻집멤버들의 탄탄면 국물을 한숟가락씩 세금테서 맛평가를 해 봤습니다. 사천탄탄면은 생각보다 매운맛이 그리 강하지 않았고, 맵부심이 약

한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맵기였습니다. 마라탄탄면은 놀랍게도 그냥 마라탕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마라탕은 먹고싶는데 금도양꼬치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오픈런 하거나 웨이팅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대신 여기 와서 마라탄탄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냉탄탄면은 매운맛 없이 시원+새콤한게 딱 중국식 냉면이 떠오르는 맛이었습니다. 근처 고가의 중국냉면이랑 이거랑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솔직히 맛구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콤비빔탄탄면은 단짠단짠 밸런스가 완벽한 쫄면같은 비빔면이었습니다.

넷 다 엄청 특별하지는 않지만 모두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고, 특히나 탄탄면의 베이스가 되는 면발이 al dente로 익혀져 나와서 식감이 꼬들한게 좋았습니다. 세트로 같이 나오는 닭튀김도 이자카야에서 파는 가라아게 같았고 튀김교자는 탄탄면 국물에 찍먹해서 먹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이정도만 먹어도 사실 엄청 배부르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진다면 디저트로 남은 국물에 공깃밥을 비벼먹으면 좀 더 완벽하게 탄탄면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24시간



배고픈 직장인들의 먹성을 위해 사장님이 미니공깃밥을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쓱스러워 말고 당당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남남멤버들과의 탄탄면 점심파티는 너무 만족스러웠고 즐거운 식사 덕에 오후에 업무를 이어서 할 힘과 좋은 기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맛, 가격, 분위기, 편의성, 감성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평범한 날에 부담 없이 가기 좋은 식당으로 탄탄면공방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의 첫

번째 맛기행 기록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음 먹부림을 기대해주세요. 쉬지 않고 열심히 돼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